

2021년 7월 18일[제 41권 29호]

T W O W I N G S 1 5 0 0 V I S I O N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홈커밍데이 러브투게더)

전통예배
오전 11: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사도신경
(카리스찬양팀)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피어찬양팀)
찬양 지금 여기에

고백과
헌신

기도 정영아 집사
성도의 교제

기도 김민수A 집사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누가복음 15장 11~24절 (신약 120)

엄치가 없어야 보이는 것은?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축도 담임목사

봉헌 거리마다 기쁨으로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계 4:10~11
다시 멸류관을 그 분 앞에
설교 담임목사

7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축제예배 김영숙 권사
젊은예배 고진희 간사

[봉헌]

전통예배 양성순 정일숙
축제예배 박원찬 황병인
김은혜 박현숙 정세희
젊은예배 김솔 옥임석

수요기도회 19:30

목장별 모임과 나눔

8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김문숙 안선명

[젊은예배]

박해인 유한나

[축제예배]

라종선 김선곤
강미령 김은희 임영미



오늘의 말씀

엄치가 없어야 보이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1~24절]

첫째,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는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 돌아온 아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를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

[역대하 34:18~28]

W

WELCOME

환 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 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 씀

.....
최근 읽은 책이나 신문, 들은 소식 가운데 기억나는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Q

QUESTIONS

질 문

1. 성전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18~19절) 그가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21절)
2. 신하들이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22절) 유다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24~25절) 요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27~28절)
3. 요시아 왕의 모습에서 취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듣고 읽는다(18절).
 -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아멘으로 반응한다(19절).
 - 말씀에 해박한 사람에게 배우려 노력한다(22절).
 - 좋지 않은 말씀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24~25절).
 - 말씀 앞에서 겸손히 통회한다(27절).
 -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큰 복임을 깨닫는다(28절).
 - 기타
4. 지난 한 주간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눠봅시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정한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하나님(1)

- 청년A-2목장 고진희 간사 -

안녕하세요 고진희 간사입니다.

저의 가정은 일년에 수차례 제사를 지내며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부적을 사오셔서 옷이나 또는 베개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엄하셨으며 알콜중독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싫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증오,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여 늘 다투고 화를 내며 공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삶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곧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며 살았는데 제 삶에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술을 찾았고 매일 술에 취해있었습니다. 눈이 떠져서 살았고 죽을 용기가 없어서 하루 하루를 버티며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내일이 두려웠던 저의 몸과 마음은 우울함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27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에 친언니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며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과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누군가 제게 전도하면 인상부터 찌푸렸는데 그 순간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다면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의 예일교회입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을 깊이 어루만져 주셨고 가슴에 돌덩이와 같은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면 창밖의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만물을 보며 감사했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불쌍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고 더 깊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에 양육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여 첫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훈련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 어른들을 보면 주눅이 들고 불안해했고 아버지께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기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해도 되지 않고 무척 어려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늘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말들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상

쳐 난 부분과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기에 제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아 넘어지고 주저앉아 다시 시작하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기까지 4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눈물로 졸업식을 하는데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되신 우리 엄마, 증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자유케하신 주님의 은혜, 제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늘 나를 품어준 공동체 식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저는 셀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저는 2013년에 셀리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함과 의무감으로 리더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모델이 없었기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또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와 관리 차원의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든지 더 잘하고 싶었고 앞선 리더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쳤지만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사역은 의무와 책임만 남은 변질된 모습의 셀리더였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하고 잘만 사는 것 같은데 라는 비교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일이 부질없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로 인해 기복적인 신앙의 반복으로 셀가족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잃고 보니 다시 리더의 자리에 서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눔을 하면 할수록 나와 다른 모습의 사역은 더욱 괴리감을 느끼게 했고 심지어 위축되고는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교회에서 2016년 첫 필리핀 아웃리치 모집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웃리치를 다녀온 사람들의 모습이 놀랍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1호 단기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후 2017년 2월 아웃리치를 부모님의 도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웃리치의 모든 일정은 전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도에 두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아웃리치 통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 다음주에 계속... -



목회칼럼

가장 완벽한 정답

개인이나 가정, 사회, 단체, 국가는 언제나 새로운 사건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런 문제에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틀린 답을 제시하면 일을 크게 그릇치고 혼란과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몫이요 시대의 선각자 몫입니다. 유다 히스기야 왕 때 강대국 앗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망하고 해체되었습니다. 남유다도 풍전등화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데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애굽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애굽은 앗수르와 쌍벽을 이루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많은 마병, 철병거, 특수부대가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이 움직이면 앗수르의 위기는 사라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엎

드러져 함께 망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사 31:1~9). 이것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현대과학의 결정체인 유인왕복 우주선 아폴로가 고장이 나서 우주의 미아가 되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 기도일로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우주선이 무사귀환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에 마지막 전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습니다. 그 때 부산에 모였던 목사, 장로님들이 부산의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를 시작한지 8일만에 유엔이 참전을 가결하고 16개국이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였습니다. 국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국제 금융위기에 전대 미문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고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장들이 노숙자로 내몰렸습니다.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고리의 이자를 취하면서 풍요를 구가하면서 「더도 말고 덜고 말고 IMF만 같아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죽어가고 가정이 해체되어 늙은 부모를 보호시설로, 자녀들을 고아원으로 가는 아픔을 겪는데 이런 아픔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유다는 국가적 위기에 올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픔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엮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할 수 있을 때 바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설득 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미국도 못하고 유엔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은 필생의

역작으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드린 후에 북방 이민족의 침입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거대한 제국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그 속에 영원히 붕괴되지 않는 또 다른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神國)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제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령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관하시어서 어려움 없이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필리핀의 박해인 선교사와 러시아의 최슬기 선교사, 최평안 선교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고진희 간사

-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인파선염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피곤이 몸과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소서.
- 청소년 집중 훈련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되게 하소서.
- 목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분가를 이루도록 하나되게 하소서.

2. 김은숙 간사

- 청소년부 여름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함 속에서 진행되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 청년 목장식구들이 예배와 목장모임을 회복하여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재상산되게 하소서.
- 아버지의 허리수술, 어머니의 발목 수술 일정이 잘 잡혀 수술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 찬미에게 귀한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건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다음주에 5명의 아이들만 보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 좋은 날씨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로 아버지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소서.



이번주 소식

1. 두달개 청소년 어린이 집중훈련이 화요일 (20일)부터 금요일(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 다음세대 여름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부 성경학교 : 8월 중
유초등부 성경학교 : 8월 중
청소년부 수련회 : 8. 8(주일)~10(화)
청년공동체 수련회 : 8. 15(주일)~17(화)
3.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둘째주 (8/8)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8월 29일(주일)개강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8시
(인원이 부족한 반은 폐강가능하고, 다른 반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토요일 오후 5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4. 회복캠프가 8월 28일(토)에, 리더캠프가 8월 21일(토)에 진행됩니다.
5. 8월 한가족 환영식 축하는 여성D-2목장입니다.

<동정>
이미란 집사 부친상 - 지난 7월 7일(수)

새가족 섬김이

김한솔 자매 (섬김이 : 이혜수 자매)
김미라 성도 (섬김이 : 박현숙 권사)
김미화 성도 (섬김이 : 김은희 집사)
김연성 성도 (섬김이 : 박형훈 집사)
김인숙 성도 (섬김이 : 권진희 집사)
김풍곤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노승현 형제 (섬김이 : 박관수 형제)
박병호 성도 (섬김이 : 김성국 집사)
사규미 자매 (섬김이 : 김은숙 간사)
안영준 형제 (섬김이 : 이광수 간사)
안지민 성도 (섬김이 : 강미령 권사)
안진희 자매 (섬김이 : 김은숙 간사)
오준석 형제 (섬김이 : 한상익 집사)
오청근 성도 (섬김이 : 이상철 집사)
이명용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이재암 성도 (섬김이 : 이승길 장로)
이종경 형제 (섬김이 : 임경진 집사)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4목장 (이은숙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3목장(이해경 목자)
2층 : 여성B-1목장(김영숙 목자)
3층 : 여성A-5목장(김하심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 배 시 간

전 통 예 배	주일 오전9시
축 제 예 배	주일 오전11시
젊 은 예 배	주일 오후1시 30분
공 동 체 예 배	주일 오후3시
새 벽 기 도 회	주일 - 금 새벽5시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9시 30분
유 아 부	주일 오전11시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9시
청 소 년 부	주일 오전9시
작 은 날 개 모임	목장별 정한시간

섬 기 는 분 들

담임목사	강승신	장	로 이성근 이승길
전 도 사	장효진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